

# 『표준국어대사전』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고찰

유방\*

— || 차례 || —

- I. 서론
- II.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결합 양상
- III. ‘X어지다’류 합성 동사 등재 관련 문제점
- IV.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등재 기준 제시
- V. 결론

## 【           】

이 글의 목적은 『표준국어대사전』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일관성이 있는 등재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지다’를 보조 용언으로 처리하고 그 의미를 ‘피동’과 ‘상태의 변화’로 제시하였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서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등재에 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등재 기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전에서는 구조나 빈도, 언중의 인식 정도에 더하여, 의미적으로 특수하게 변했거나 기존 어휘들이 투명하게 결합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두루 고려하여 표제어를 선정한다. 그러나 ‘X어지다’류 합성 동사 가운데 ‘뜨거워지다, 슬퍼지다, 힘들어지다’ 등과 같이 ‘지다’가 선행 성분에 투명하게 결합된 것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도 ‘-어지다’가 결합될 수는 있으나, ‘뒤집어지다, 찢어지다’ 등과 같이 단순히 ‘피동’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별도의 합성 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관성이 있는 등재 기준을 모색하고 제시한다.

주제어: 『표준국어대사전』, ‘X어지다’류 합성 동사, 결합 양상, 일관성, 등재 기준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 I. 서론

‘지다’는 최현배(1937)에서 일찍이 ‘피동’의 의미를 표시하는 보조 용언으로 제시된 바 있다.<sup>1)</sup> 이기동(1978), 우인혜(1992)에서 보조 용언 ‘지다’의 의미를 ‘기동상’으로 제시하고, 손세모돌(1996), 호광수(2003)에서는 ‘변화’로 제시하였다.<sup>2)</sup> 최근 『표준국어대사전』<sup>3)</sup>에서도 ‘지다’를 보조 용언으로 처리하고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가. (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말.
- 나. (동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
- 다. (형용사 뒤에서 ‘-어지다’ 구성으로 쓰여) 앞 말이 뜻하는 상태로 됨을 나타내는 말.

『표준』에서 제시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1나)와 (1다)를 ‘상태의 변화’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뜻풀이와는 달리 ‘지다’를 후행 성분으로 하는 합성 동사도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중에서 보조 용언 구성을 가지는 것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도원영(2000)에서는 『표준』을 포함한 여섯 권의 국어사전에 대해 검토하

1) 최현배의 『우리말본』은 1937년에 초판이 나왔고, 이후 1955년, 1965년 등 여러 차례 증보 및 개정판이 나온 바 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최현배(1965)를 인용하였다.

2) 이들과 달리 이강로(1967), 고영근(1974)에서 ‘지다’를 접미사로 보고, 이관규(1986)에서는 본동사로 처리하였다.

3) 이하 『표준국어대사전』을 편의상 『표준』으로 약칭한다.

고 표제어 목록에서 지적할 만한 문제점의 하나로서 명확한 선정의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을 들었다.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들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 표제어 목록을 작성했다기보다는 기존 사전의 목록을 그대로 계승하고 신어를 추가하는 작업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인의정·황은하(2000)에서도 기존 국어사전들의 표제어 선정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별로 일러두기의 표제어 관련 설명 부분을 검토하였는데 『표준』의 일러두기<sup>4)</sup>는 표제어의 시기, 어원, 사용 지역, 표준어 여부, 표제어 단위 등의 수록 범위에 대한 소개만 있고, 표제어의 선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표준』의 표제어 선정의 일반 원칙을 『표준』의 편찬 지침<sup>5)</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

4) 표제어 선정과 관련된 『표준』의 일러두기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어를 비롯하여 북한어, 방언, 옛말을 두루 수록하였으며 흔히 쓰는 비표준어도 올렸다. 이두는 수록하지 않았다.
- (2) 일반어뿐만 아니라 전문어, 고유 명사도 수록하였다. 전문어와 고유명사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일부만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 (3) 단어 이하의 단위만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구도 수록하였으며, 관용구와 속담도 수록하였다.
- (4) 북한어는 『조선말대사전』(1992)에 수록된 단어 가운데 남한에서 쓰임이 확인되지 않은 단어와 어문 규정의 차이로 달리 표기하는 단어를 편찬 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남한에서 쓰는 단어라도 북한에서만 쓰는 용법이 있다면 북한어 뜻을 덧붙였다.

5) 표제어 선정과 관련된 『표준』의 편찬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쓰거나 썼던 말 중에서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단어를 수록한다.
  - (1) 일상에서 쓰는 말을 수록한다.
    - 가. 표준어는 모두 수록한다.
    - 나. 비표준어는 널리 쓰는 것을 선별하여 수록하되, 대응하는 표준어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2) 북한의 문화어를 폭넓게 수용한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어휘를 선별하여 수록한다.
  - (3) 전문 분야의 언어를 영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지침에서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록한다’라는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표제어로 올릴 가치’의 정의나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국어국립원 ‘묻고 답하기’에 의하면 『표준』에서는 구조나 빈도, 언중의 인식 정도에 더하여, 의미적으로 특수하게 변했거나 기존 어휘들이 투명하게 결합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두루 고려하여 표제어를 선정하고 하였다. 그러나 『표준』에서 ‘X어지다’류 합성 동사 가운데 ‘깊어지다, 뜨거워지다, 쉬워지다, 슬퍼지다, 힘들어지다’ 등과 같은 ‘지다’가 선행 성분에 투명하게 결합된 것들을 많이 등재하고 있다.<sup>6)</sup> 이들은 ‘지다’가 선행 용언에 투명하게 결합되어 보조 용언으로 쓰인 의미와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면 ‘기뻐지다, 두꺼워지다, 무서워지다, 어려워지다, 좋아지다’ 등도 표제어로 등재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sup>7)</sup>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빈자리를 메워 주는 구실을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sup>8)</sup> 다만, 피동

(4) 방언을 지역별로 선별하여 수록한다.

(5) 옛말을 선별하여 수록한다.

2. 단어가 아니더라도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수록한다.

(1) 접사와 어근, 어미를 수록한다.

(2) 단어보다 큰 단위도 수록한다.

6) 편의상 선행 성분에 ‘-아지다’,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들을 ‘X어지다’류 합성 동사로 부른다.

7) ‘X어지다’류 합성 동사뿐만 아니라 임석규(2018나)에서 『표준』의 단어 등재에 관련된 다른 문제점도 몇몇 제시하였다. ‘공으로’는 ‘공’에서 파생된 말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근을 ‘공(空)’으로 설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공’은 『표준』에서는 접사로 등재되어 있다. ‘외로’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또 다른 문제도 거론하였다. ‘암’, ‘수’는 명사와 접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명사로서의 용례인 ‘암과 수의 구별’이 ‘암’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에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암과 수’의 구별과 관련해 ‘열과 성을 다해’라는 표현에 의지한다면 ‘열’과 ‘성’은 명사이어야 할 것인데 ‘열’은 명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성’은 명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8) 이익섭·채완(1999:298~299)을 참고한 것이다.

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도 ‘-어지다’가 결합될 수는 있으나, ‘뒤집어지다, 찢어지다, 찢지다’와 같이 단순히 ‘피동’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별도의 합성 동사로 등재할 필요는 없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구성을 하나의 합성 동사로 볼 것인지 보조 용언 구성으로 볼 것인지는 문법적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명백한 판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등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표준』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살펴본 후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등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결합 양상

이 장에서는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sup>9)</sup> 결합은 가능하나 표제어로 인정받지 못한 유형 두 가지와 표제어로 인정받은 유형 세 가지로 나누기로 한다.

첫째, 『표준』에서는 접사인 ‘-하다’를 포함한 용언에 ‘-어지다’가 결합된 것들을 합성 동사로 인정하지 않기에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sup>10)</sup> 아래의 (2)에 제시된 용언은 표제어가 아닌 셈이다.

---

9) 이 글에서 나타난 단어들은 모두 『표준』이나 국립국어연구원(2002)의 『현대국어 사 용빈도 조사』에서 수록된 것이다.

10) ‘머슴해지다’가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머슴해지다’는 같은 구조를 가지는 다른 합성 동사들과는 달리 선행 성분인 ‘머슴하’에 ‘-어지다’가 결합된 다음 품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형용사로 나타난다.

(2) 가해지다, 곤란해지다, 다양해지다, 상쾌해지다, 솔직해지다, 심각해지다, 전해지다, 합해지다, 행복해지다, 환해지다...<sup>11)</sup>

‘하다’를 포함한 용언 가운데 ‘하다’를 포함한 동사의 경우는 피동사 파생에 의한 피동 표현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지다’에 결합되어 피동 표현을 실현하거나 ‘하다’를 ‘되다’로 대치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한다. 『표준』에서는 ‘되다’로 대치하여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것들은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고 ‘-어지다’에 결합되어 피동 표현을 실현하는 것들은 보조 용언 구성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하다’를 포함한 형용사의 경우는 ‘-어지다’에 결합되어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고 『표준』에서는 보조 용언 구성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둘째, ‘피동사+-어지다’인 이중 피동 구성을 가지는 것들은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3)에서 제시된 용언 또한 표제어가 아니다.

(3) 나뉘어지다, 놓여지다, 단혀지다, 담겨지다, 씌어지다, 열려지다, 잊혀지다, 잘려지다, 짜여지다, 풀려지다…

‘답기다, 열리다, 잊히다’ 등은 이미 해당 용언의 피동형인데, ‘피동’의 뜻을 가지는 ‘-어지다’와 결합하면 의미 중복 표현<sup>12)</sup>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다.<sup>13)</sup>

11) 이 글에서 제시된 예들은 편의상 가나다순에 의지한다.

12) 이은애(2002:4)에서 의미 중복 표현은 합성어 및 구, 그리고 문장에서 나타나는 언어 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언어 형식이 반복적으로 쓰이는 현상으로 제시하였다.

13) 이중 피동 표현인 ‘잊혀지다’는 『연세현대한국어사전』에서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의 일러두기를 보면 사전을 구축할 때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휘의 사용 빈도에 근거하여 표제어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 많이 쓰인 구어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잊혀지다’보다 ‘잊히다’를 받아들이

셋째,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

- (4) 가벼워지다, 감파래지다, 거메지다, 검퍼레지다, 길어지다, 노래지다, 달라지다, 동그래지다, 무거워지다, 미워지다, 슬퍼지다, 싫어지다, 커지다...

『표준』에서는 위에 제시된 색채 형용사, 형상 형용사, 정서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sup>14)</sup> 그러나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의 경우는 ‘-어지다’가 모두 선행 성분의 용법에 투명하게 결합되어 보조 용언으로서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것들이다. 만약에 그것들이 합성 동사로 수록되면 ‘가까워지다, 굵어지다, 낮아지다, 어두워지다, 좋아지다’ 등도 표제어로 수록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sup>15)</sup> 따라서 이때의 ‘지다’는 합성 동사의 후행 성분보다는 보조 용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X어지다’류 합성 동사들의 선행 성분은 대부분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한 타동사들이다.

- (5) 남겨지다, 늦춰지다<sup>16)</sup>, 밝혀지다, 벗겨지다, 알려지다, 갖혀지다, 짓혀

---

기 쉽지 않았다.(임석규, 2018가:155) 이처럼 ‘잇혀지다’는 실제 사용 빈도가 높아서 수록된다고 볼 수 있다.

14) 형용사에 대한 분류는 방영심(2011:33~41)을 참고할 수 있다.

15) 임석규(2018가:154~156)에서 ‘커지다/작아지다, 길어지다/짧어지다’와 같은 항목들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데 반해 ‘낮아지다, 굵어지다’는 그 반의어인 ‘높아지다, 가늘어지다’와 달리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길어지다/짧어지다’와 관련하여 ‘뭉어지다’조차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데 ‘열어지다’는 표제어가 아니다. 이들 몇몇이 왜 표제어로 등재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16) ‘늦춰지다’의 경우는 합성 동사로 수록되어 있으나 보조 용언 ‘지다’의 예문에서도 나와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지다...

『표준』에서는 타동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들은 대부분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 가운데 (5)에서 나타난 ‘사동사+-어지다’ 구성을 가지는 합성 동사는 대표적인 것이다.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도 ‘-어지다’가 결합될 수는 있으나, ‘뒤집어지다, 찢어지다, 꺾지다’ 등과 같은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단순히 ‘피동’의 의미를 나타낸 것들도 별도의 합성 동사로 수록하고 있다.<sup>17)</sup>

다섯째, ‘-어지다’의 선행 성분이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합성 동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6)은 ‘X어지다’류 합성 동사 가운데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X’를 밝히기 어려운 예들이다. 이들이 표제어로 수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6) 누그러지다, 두드러지다, 망그러지다, 미끄러지다<sup>18)</sup>, 부러지다, 스러지다, 시그러지다, 우라지다, 으그러지다, 자빠지다<sup>19)</sup>, 쪼그러지다...

17) 피동 표현은 피동법의 실현 방법에 따라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찢어지다’와 같은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과 ‘찢기다’와 같은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 표현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전에 제시한 ‘찢어지다’의 의미를 보면 ‘찢어지다’를 합성 동사보다 보조용언 구성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그의 의미도 보조 용언의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8)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은 『표준』과 달리 ‘미끌어지다’와 ‘미끄러지다’가 모두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묻고 답하기’에 따르면 ‘미끄러지다’는 18세기 문헌에 ‘밧그러지다’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고 그의 어간인 ‘밧글-’의 형태는 문중되지 않는다. ‘한글 맞춤법’의 제15항에 따르면 ‘미끌다’의 어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다’로 표기해야 한다.

19) 21세기 세종계획 누리집의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한국 방언’에서 ‘자빠지다’는 ‘넘어지다’의 <전남>[전역]<경남>[거창, 사천, 함양, 산청, 합천, 양산, 함안, 통영, 거제, 진주, 하동, 창원]의 지역 방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표제어로서의 ‘넘어지다’와는 다른 의미인지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들은 ‘-어지다’와 결합된 형태로만 쓰일 뿐이다. ‘누글다, 두들다’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상에서 우리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결합 양상을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 Ⅲ. ‘X어지다’류 합성 동사 등재 관련 문제점

이 장에서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등재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2장에서 제시한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결합 양상을 통해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등재에 관한 기준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 용언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은 피동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빈자리를 메워 주는 구실을 한다. 이때의 선행 용언은 일반적으로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중에서 사동사의 피동이 대표적이다. 또한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도 ‘-어지다’가 결합될 수 있기는 한데, 이때의 ‘지다’가 선행 성분에 결합되어 단순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면 별도의 합성 동사로 수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뒤집어지다, 찢어지다, 퍼지다’와 같은 것들이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사전에서는 ‘-어지다’와 결합한 용언 가운데 형용사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깊어지다, 뜨거워지다, 넓어지다, 짙어지다, 추워지다’ 등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어지다’가 선행 성분에 투명하게 결합되어 보조 용언으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것들이다. 『표준』에서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를 선정할 때 선행 성분의 일부 용법에만 결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묻고 답하기’에서 ‘좋아지다’를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좋아하다’는 매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좋다’와는 달리 일부 용법에서만 ‘-어하다’가 결합될 수 있는데, ‘좋아지다’는 ‘좋다’의 용법에 투명하게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아하다’는 별도의 표제항으로 등재할 이유가 있는 반면 ‘좋아지다’는 별도의 표제항으로 등재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좋다’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 때문에 ‘좋아지다’를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에서 기존 어휘들에 투명하게 결합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일종의 선정 기준으로 보았으나, 실제로 위에 제시한 ‘깊어지다, 뜨거워지다, 넓어지다, 짙어지다, 추워지다’처럼 ‘-어지다’가 선행 용언에 투명하게 결합되어 보조 용언으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것들을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이점에서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등재 기준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표준』에 수록되어 있는 일부 합성 동사들을 하나의 합성 동사로 볼 것인지 보조 용언 구성으로 볼 것인지 재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IV.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등재 기준 제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구성을 하나의 합성 동사로 볼 것인지 보조 용언 구성으로 볼 것인지는 문법적 관점이나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명백한 판별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하다. 그렇지만 사전으로서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는 등재 기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위에

제시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일관성이 있는 등재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기본적으로 보조 용언 구성과 달리 선·후행 용언이 굳어져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연히 수록되어야 한다. ‘-어’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와 보조 용언 구성의 구별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조 용언 ‘지다’의 경우는 ‘-아/-어’ 뒤에 붙는 ‘지다’를 붙여 쓰이기 때문에 같은 구성을 가진 합성 동사와의 구별이 더욱 어렵게 만들어진다.<sup>20)</sup> 그러나 선·후행 용언이 결합한 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의미적으로는 보조 용언 구성과 명백하게 구별될 수 있다. 예컨대, ‘뉘지다’의 경우 선행 용언은 본뜻에서 멀어지고 ‘죽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표제어로 등재할 수가 있다. ‘깨어지다’도 마찬가지로 속되게 ‘경기 따위에서 지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표제어로 등재할 수가 있다. 또는 2장에서 제시한 ‘X어지다’류 합성 동사 가운데 선행 성분이 현대국어 관점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도 합성 동사로 수록해야 한다. 이들의 경우는 선행 성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어지다’의 용법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합성 동사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에 이들을 표제어로 수록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2장에서 제시한 ‘하다’를 포함한 ‘-어지다’가 결합된 것들을 합성 동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사와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용언들의 경우는 형용사나 동사나 ‘-어지다’에 결합되면 보조 용언으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가해지다, 전해지다, 행복해지다’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명사와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용언은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록되면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접사인 ‘-하다’를 포함한 용언에 ‘-어지다’가 결합된 것들을 합성 동사로 인정하지 않기에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아야 한다.

20) 한글 맞춤법의 제47항에 의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러나 보조 용언 ‘지다’의 경우는 원칙으로부터 ‘-아/-어’ 뒤에 붙는 ‘지다’를 붙여 쓰는 것이다.

둘째,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용언의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나 용법 가운데 일부만 ‘-어지다’와 결합될 수 있다면 그 결합은 표제어로 인정되어야 한다. ‘굳어지다, 늘어지다, 틀어지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굳다’는 다음과 같이 다의어적인 의미를 지닌다. 『표준』을 인용하기로 한다.

[ I ] 「동사」

[1] 「1」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2」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3」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하여지다.

「4」 몸에 배어 버릇이 되다.

「5」 돈이나 쌀 따위가 험하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계속 남게 되다.

[2] 『북한어』 편지나 소식을 보내지 아니하게 되다.

[ II ] 「형용사」

「1」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다.

「2」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3」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

그중에서 동사로서의 「2」, 「3」, 「4」, 형용사로서의 「1」, 「2」의 뜻인 경우에만 ‘-어지다’와 결합될 수 있다. 『표준』에서 ‘굳어지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1」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게 되다.

「2」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게 되다.

「3」 표정이나 태도 따위가 긴장으로 딱딱하게 되다.

「4」 근육이나 뼈마디가 점점 뻣뻣하게 되다.

[2] 【…으로】

점점 몸에 배어 아주 자리를 잡게 되다.

동사로서의 「1」, 「5」, 형용사로서의 「3」의 뜻인 경우에 ‘-어지다’와 결합되면 다음과 같은 예문을 얻을 수 있다.

- (7) 가. 찬 곳에 두었더니 기름이 굳어지다.
- 나. 네가 안 먹으면 내 돈이 굳어지다.
- 다. 그 구두쇠는 사람됨이 굳어지다.

(7)은 『표준』에서 제시된 ‘굳다’의 예문을 토대로 ‘-어지다’를 결합해 본 것이다. 매우 어색한 표현이다. ‘굳다’, ‘굳는다’, ‘굳었다’ 정도로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어지다’가 선행 용언에 투명하게 결합되어 보조 용언으로서의 의미를 더하는 것은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할 필요는 없다. 2장에서 제시한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의 경우 ‘-어지다’와 결합되어 ‘상태의 변화’와 같은 보조 용언으로서의 의미만 지닐 뿐이다. 예컨대, ‘높다’와 ‘높아지다’를 비교해 보면 ‘높아지다’는 원래 높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된다는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고, ‘예쁘다’와 ‘예뻐지다’를 비교해 보면 ‘예뻐지다’는 원래 예쁘지 않은 상태에서 예쁜 상태로 된다는 ‘상태의 변화’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것들은 합성 동사보다는 보조 동사 구성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로써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것들을 합성 동사로 인정하지 않기에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표제어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sup>21)</sup>

21) 사전에서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는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일이

- (8) 더디어지다, 빗어지다, 빨개지다, 빨게지다, 슬퍼지다, 싫어지다, 알따래지다, 어지러워지다, 영클어지다, 차가워지다, 추워지다, 형클어지다, 힘들어지다... 22)

셋째, 이중 피동을 피한다.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는 ‘-어지다’가 결합될 수 있으나, 피동사에 또 다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다’를 결합하는 것은 잉여적인 표현이다. 이런 이중 피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잊히다’와 ‘잊혀지다’ 등을 비교해 보면 의미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 무조건 틀린 표현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전으로서 이런 규범문법에서 쓰이지 않는 표현을 수록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봄 직하다. 따라서 선행 용언이 피동사인 경우 ‘-어지다’와의 결합을 피해야 한다. ‘담겨지다, 씌어지다, 열려지다, 잊혀지다, 짜여지다’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의 경우 ‘-어지다’가 결합된 후 ‘피동’의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가 없으면 보조 용언 구성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에도 ‘-어지다’를 결합할 수 있으나, ‘-어지다’가 결합된 후 ‘피동’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다면 합성 동사로 인정하고 반대로 ‘피동’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없다면 보조 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피동 표현은 피동법의 실현 방법에 따라 의미적으로 차이가

---

제시하지 않는다.

- 22) ‘가땅다/거땅다, 발깡다/벌깡다, 노랗다/누랗다, 동그랗다/둥그랗다’ 등은 ‘-어지다’와 결합 시 불규칙적인 형태를 띤다. 소위 ‘ㅎ 불규칙’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확인된다. ‘가매지다/거매지다, 발개지다/벌개지다, 노래지다/누래지다, 동그래지다/둥그래지다’ 등에서 불규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가땅-/거땅-’ 등에 ‘-어지다’가 결합되어 의미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등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있다. 따라서 ‘찢어지다’와 같은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과 ‘찢기다’와 같은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 표현은 의미적으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전에 제시한 ‘찢어지다’의 의미를 보면 ‘찢어지다’를 합성 동사보다 보조 용언 구성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그의 의미도 보조 용언의 측면에서 따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표제어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 (9) 뒤집어지다, 땀어지다, 찢어지다, 퍼지다, 써지다, 끊어지다, 형클어지다, 벗어지다

## V. 결론

이 글은 『표준』의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살펴본 후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인 등재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표준』에 등재되어 있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결합 양상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표준』에서는 접사인 ‘-하다’를 포함한 용언에 ‘-어지다’가 결합된 것들을 합성 동사로 인정하지 않고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둘째, ‘피동사+-어지다’인 이중 피동 구성을 가지는 것들을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셋째, 형용사에 ‘-어지다’가 결합된 합성 동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넷째, ‘X어지다’류 합성 동사들의 선행 성분은 대부분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한 타동사들이다.

다섯째, ‘-어지다’의 선행 성분이 현대국어 관점에서는 분석하기 어려운

합성 동사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등재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결합 양상을 통해 ‘X어지다’류 합성 동사의 등재에 관한 기준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X어지다’류 합성 동사에 대한 등재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보조 용언 구성과 달리 선·후행 용언이 굳어져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것을 수록해야 한다.

둘째, 여러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언의 경우 그것이 가지는 의미나 용법 가운데 일부만 ‘-어지다’와 결합될 수 있다면 그 결합은 표제어로 등재되어야 한다.

셋째, 이중 피동을 피한다.

넷째, 피동사 파생이 가능한 동사의 경우 ‘-어지다’가 결합된 후 ‘피동’의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가 없으면 보조 용언으로 파악하여 별도의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다.

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표준’이라는 타이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정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차후 수정 단계에서나마 필자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문헌】

- 고영근,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의 연구』, 광문사, 1974.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전자판)』,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편차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2000.
- 국립국어연구원, 『현대국어 사용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2002.
- 김일병, 『국어 합성어 연구』, 역락출판사, 2000.
- 도원영, 『민연국어사전(가칭)의 표제어 선정과 그 실제에 대하여』, 『언어과학』 10, 언어과학회, 2000, pp.35-65.
- 방영심, 『근대국어 형용사 연구: 어휘 체계와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 손세모돌,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학사, 1996.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1965.
- 우인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제: 용언 ‘지다’의 의미와 기본기능: ‘-아/어지다’의 구문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1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992, pp.39-67.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현대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 이강로, 『파생접사 ‘-지-’의 형태론적 연구』, 『논문집』, 인천대학교, 1967, pp.1-16.
- 이관규, 『국어 보조 동사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이기동, 『조동사 ‘지다’의 의미 연구』, 『한글』 161, 한글학회, 1978, pp.537-569.
- 이은애, 『국어 의미 중복 표현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식섭·채완, 『국어문법론 강이』, 학연사, 1999.
- 인의정·황은하,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의 표제어 목록 구성의 이론과 실제』, 『한국사전학』15, 한국사전학회, 2000, pp.165-193.
- 임석규, 『맞춤법 따라가기』, 역락출판사, 2018.
- 임석규, 『합성어와 파생어의 IC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논총』(송철의 선생 퇴임 기념 논문집), 태학사, 2018.
- 호광수, 『국어 보조용언 연구』, 역락출판사, 2003.

**Abstract**

A contemplation on 'Xəðʒida' Type Compound Verb  
of the Korean Pyojun Dictionary

Liu, Fang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combination aspect and put forward coherent registrable standards about 'Xəðʒida' type compound verb of the Korean Pyojun Dictionary. 'ðʒida' is registered in the Korean Pyojun Dictionary as an auxiliary verb and has two meanings as 'passivity' and 'change of state'. Lack of coherent registrable standards is the problem for registration. The Korean Pyojun Dictionary takes into account the construct, frequency of a word and how the existing words can be combined before registering the words. But in some words like 't'igəwəðʒida', 'silpəðʒida', 'himdirəðʒida', etc, 'ðʒida' is combined with the main word and mean 'passivity'. Also, there are some words like 'itʒibəðʒida', 'f'itʒəðʒida', etc which can use the passive form of main words to show the phrasing of 'passivity' without 'ðʒida'. This is due to the lack of coherent registrable standards. Therefore this study illustrates coherent registrable standards about 'Xəðʒida' type of compound verb which is registered in the Korean Pyojun Dictionary.

Key Word: The Korean Pyojun Dictionary, 'Xəðʒida' type, composition verb, combination aspect, coherent, registrable standards

유방

소속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전자우편 : l51929002@gmail.com

이 논문은 2018년 11월 12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